



한국 개혁주의 설교자 시리즈 8

## 신앙 세계는 천국을 보여 준다

(히 11:13~16, 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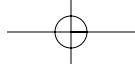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신앙이라 말할 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가 되시므로 만물이 있기 전에 살아 계셨고 만물이 없어진 후에도 살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실존이심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체질세계(體質世界)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체질 세계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체질 세계가 아니시지만 체질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체질 세계뿐 아니라 영의 세계를 지배 하십니다. 영의 세계도 영원한 세계임이 옳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체질 세계뿐 아니라 영의 세계를 지배 하십니다. 영의 세계도 영원한 세계임이 옳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 1. 신앙 세계는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다.

신앙 세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물이 벽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의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연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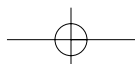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으로 취급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취급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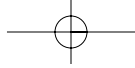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천국에서는 물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배타지 않고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이 천국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타지 않은 것은 천국의 세계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불에 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도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영으로 취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코 이 모든 기사는 신앙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 세계는 천국을 언제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일은 천국을 보여 줍니다. 천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먹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입기 위하여 수고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심은 천국을 보여 주심입니다.





다. 천국은 병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이러한 이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은 천국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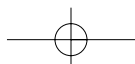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보여 줍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이적을 부인한다면 천국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명은 신앙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니 신앙 세계는 결국 천국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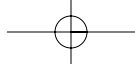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그들은 길쌈하지 않았어도 옷을 벗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천국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농사나 길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인생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을 가진 인생을 대하실 때 영으로 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이적과 기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 2. 신앙의 세계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살만큼 살다 갑니다. 범직한 그대로 살아도 고통을 당하고 회개한 사람도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이 도리어 잘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에 대한 문제가 무슨 문제될 것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죄 없이 함을 받기 원하고 죄 짓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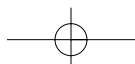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개는 사나운 이빨로 물어뜯은 죄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생에게는 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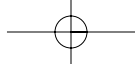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하나님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생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므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있어도 고통을 당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도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 전부라면 구태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죄 없는 영혼 세계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 세계이니 천국입니다. 천국은 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죄 없이 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죄 짓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양심상으로 죄를 범하면 고민합니다. 죄를 범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누가 보는 이 없어도 죄를 범하고 나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양심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문제는 체질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 세계의 문제임을 보여 줍니다.

인생이 죄를 범해서는 안되며 죄를 범했을 때 사유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코 영의 세계를 보여 주는 문제입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있습니다. 죄 없이함을 받기 원하는 그 신앙의 세계는 천국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기 원합니다.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무하고 슬픈 것입니다.





(결론)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은 천국을 보여 줍니다. 신앙 세계에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적도 있습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에 타거나 물에 침해 되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병도 없고 아픔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신앙 세계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생활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죄 문제를 해결시켜 줍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 짓기를 싫어하고 죄 없이 함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세계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 해결은 신앙 세계 밖에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신앙 세계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천국을 보여 줍니다. 천국은 무죄한 곳입니다.(1969. 12. 07)

